

“발로 뛰고 찾아간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시민·현장속으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다양한 민생현장을 살피고,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는 경청행보를 본격화한다. 박 청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결재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 서명하며 경청과 소통을 민선8기 모든 광산구청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 어디든 박병규 청장이 직접 찾아가 주민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다.

취임 첫날부터 다양한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소통을 실천한 박병규 청장은 당일 수완동 통장단과의 현장 간담회를 자청해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박 청장의 의지에 따라 광산구는 시기, 현안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의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생활불편, 집단민원 등이 발생한 장소, 현안과

숙원 사업 현장 등 상황과 특성에 따라 △소통 구청장실 △공감 구청장실 △동행 구청장실로 구분해 주 2회 이상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소통 구청장실은 시민 삶과 밀접한 민생을 중심으로 시간,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주요 거점을 찾는 ‘게릴라 만남’, 현장 체험 등의 형식이다. 공감 구청장실은 지역이슈로 주민소통이 필요한 곳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된 갈등민원, 숙의·공론화가 필요

한 복합 안건을 선정,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 정책토론회 등을 연계해 문제 해결 방안까지 모색한다. 생활불편 사항, 복합민원, 지역 숙원이나 공약 등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행 구청장실을 운영한다. 공사장·재난 위험시설물 등 현장 점검과 주민과의 대화 등 형식으로 주민 건의 및 제안 사항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동구, 아파트 공동체 미니 가이드북 발간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행복 도시 동구를 조성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아파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아파트공동체 미니가이드북 ‘동구 행복 아파트공동체 토크(talk talk), 첫걸음 시작하기’를 발간했다.

가이드북 발간은 온리동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인 ▲동구 아파트공동체 본격화와 보편화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동구형 문화예술아파트 조성 ▲함께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는 아파트 생활 문화운동 추진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이웃과 공간을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행복 가득 따뜻한 아파트 마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가이드북은 관내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공동체 활동 단계별 설명과 공동체 활동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총 3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1장은 아파트공동체 활동이란 무엇인가, 아파트공동체의 가치와 의미 소개, 2장은 공동체 활동의 준비·실행·평가 등 단계별 설명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방법을, 3장에서는 이웃이 있는 따뜻한 아파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공동체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2장에서는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구를 포함한 타 지역 아파트공동체 우수 활동 사례를 ▲아파트 비전 커뮤니티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에너지절약·기후환경 녹색 아파트 ▲건강 아파트 ▲공유 아파트 ▲소통 커뮤니티 ▲문화예술 커뮤니티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향후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아파트공동체 공감투어 교육’에서 교육 자료로 배포·활용할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북구, 행정안전부 주관 아이디어 시범사업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일상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됐다.

북구는 지역 일자리·경제 활성화 분야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 강좌인 ‘북평가든’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북평 가든 조성 ▲북평 가든 양성 ▲가든 발상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을 통해 텃밭관리·도시농업·밀키트 제작 등을 학습한 주민이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고용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특히 ‘북평가든’이 주민의 일상 속 배움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장소와 이용 현황, 참여 신청 등의 기능이 담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 사업인 만큼 평생학습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난 4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현안을 챙겼다. 김 청장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구청 제공

김이강 서구청장, 첫 행보 안전 현안 챙겨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난 4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현안을 챙겼다.

김 청장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취임식에서도 “각종 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 일번지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로부터 붕괴사고 수습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건물 철거에 앞서 안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201동 주변과 내부를

직접 살폈다. “안정화 작업부터 전면철거·재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만큼은 한치의 오차나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대산업개발 측에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사고현장 인근 상가피해대책위원회 상인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기만 기자

남구, 공기업 취업생 위한 특별 멘토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달부터 두달간 공기업을 비롯해 회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현직 종사자로부터 취업 성공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듣는 ‘청년-현직자 외의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에 따르면 ‘청년-현직자 외의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직 종사자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간 만남을 통해 취업 준비과정에서부터 직무별 필요 자격증 취득 방법까지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기업을 비롯해 IT, 취업 플랫폼 회사의 현직 담당자가 취업 준비생 10명 내외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현장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및 일반 기업

취업을 꿈꾸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IT분야 기업 공감미디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오는 20일부터 각 기관별로 직무에 대한 멘토링 및 취업 성공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만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남구 거주자와 남구 소재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를 우선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각 기관별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남구청 혁신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offnung10@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